

2018년 5월 11일

emerics@kiep.go.kr

## IMF, 베네수엘라에 퇴출 경고



**국제통화기금이(IMF)이 경제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베네수엘라에 퇴출 경고를 함.**

- 지난 5월 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베네수엘라가 주요 경제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기금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견책 선언(declaration of censure)'을 채택했음.
-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에게 견책 선언을 발표하고 베네수엘라가 주요 경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6개월 이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다고 밝힘.
  - 국제통화기금은 성명을 통해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개선조치 채택을 베네수엘라에 요청했으며 실행 과정을 고려해 6개월 이내에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에 189개 회원국의 의무사항인 주요 경제지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라고 경고한 바 있음.
  -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다시 협력할 용의가 있을 때 건설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마두로(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을 미국 식민주주의의 대리 기관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의 발표는 베네수엘라에 즉각적인 처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결정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기금 대출도 중단될 수 있음.
  - 베네수엘라는 1946년에 국제통화기금의 창립 회원이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경제 데이터 공개를 중단했으며 수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음.

###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가 초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음.

□ 지난 4월 30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저임금을 100만 볼리바르(bolivar)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의 이번 최저임금 발표는 종전 보다 155% 인상한 것으로 올해에만 3번째임.
- 마두로 대통령은 식품 무상 교환권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을 255만 볼리바르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암시장에서 가치로 환산하면 3.2달러임.
- 마두로 대통령은 또한 베네수엘라의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는 5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추가로 2달러의 추가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이 금액으로 닭고기 2 킬로그램 조금 넘게 살 수 있는 수준임.
-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통화 정책의 틀을 굳건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음.
- 한편, 베네수엘라는 화폐 경제가 무너져 식료품·의료품 등 생필품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져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

□ 지난 4월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거의 14,000%를 기록하는 등 초인플레이션 상황임.

- 입법부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소비자 물가는 3월에 67%, 4월에 80% 상승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13,779% 상승했음.
-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야당 지도자들에 의한 ‘경제 전쟁’의 희생자이며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불법 거래에도 불구하고 용인된 암시장에서 볼리바르에 대한 환율은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99% 하락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는 6월에 통화 개혁을 계획 중에 있지만 비판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제 때에 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음. **EMERiCs**

#### 참고자료

Reuters, Venezuela annual inflation nears 14,000 pct -legislature, 2018. 05. 08

Reuters, IMF censures crisis-stricken Venezuela over lack of data, 2018. 05. 03

Reuters, Venezuela minimum wage up 155 percent, down 13 percent in dollar terms, 2018. 05. 01

Thenational, Maduro raises minimum wage again as Venezuela battles hyperinflation, 2018. 05. 01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